



제목	Yahwism After the Exile : Perspectives on Israelite Religion in the Persian Era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Van Gorcum
발행일	2003. 1. 1.
저자	Albertz Rainer, Bob Becking(편집자)
출판국가	네덜란드
페이지수	300
ISBN 또는 ISSN	978-9023238805

**내용 요약**

이 책은 유럽성서학협회의 첫 번째 회의에서 발표된 13편의 논문을 편집한 것이다. 이 논문들은 예후 시대 포로 후기 공동체의 발전에 아웨 종교가 담당한 역할에 대한 주제들을 담고 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페르시아 시대는 호기심을 자아내는 시기이다. 편집자에 의하면 페르시아 시대는, 다양한 아웨신앙이 나타나는 초기 이스라엘 유대 종교에서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하는 유대교로 변화되는 “전환의 시기”라고 한다. 또한 예후가 통치하는 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페르시아 행정 문서자료가 없기 때문에, 페르시아 시대의 유대인의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므로 성서자료가 비록 날짜나 의도를 확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중요한 자료이며, 비문들과 고고학의 증거들도 페르시아 시대를 밝혀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 중에서 알베르츠(Rainer Albertz)의 논문 “좌절된 회복(The Thwarted Restoration)”은 이 책 전체를 아우르는 서론격에 해당된다. 알베르츠는 성서학자들이 페르시아 시대를 묘사하기 위해 종종 사용한 “회복”이라는 용어가 실제로는 적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시대는 포로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 이데올로기적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 실린 모든 논문들이 이 책의 주제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몇몇 논문들이 시도한 성서문헌비평은 예후 통치 하의 포로 후기 유대공동체를 역사적으로 재건하는 데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반면, 몇몇 논문들의 주장은 철저한 주석이 이루어진 주제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